

일본 소비세 증세 직후 수출 동향

- 식품업계 영향 및 '15년 증세 대책 -

오사카aT센터 단신 2호 (2014.4.9)

소비세 증세 후 일본경제

- '14년 4월 1일 소비세 8% 시대가 도래
 - 세수증가 : 약 5조엔
 - 【2.9조엔 기초연금, 1.3조엔 사회보장비, 0.5조엔 육아지원비 총당】
 - 개인부담 : 연수 500만~550만엔 4인세대 연간 7만1천엔 증가.
- ※ 참고 : 일본경제신문 4.1
- 증세 후 일본경제 동향
 - 4~6월 실질성장을 전년대비 -4.1%, 7~9월 +2.2%
 - 대체적으로 소비세 증세 직후는 증세 전 사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시적 수요감소가 발생하지만, 여름 이후 경기가 회복기조로 인해 '97년 증세 여파보다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일본 경제계 예상)

<'14년 증세 관련 일본 아베노믹스>

엔화가치하락(양적완화) → 무역수지개선 → 소비자물가 및 개인소득증가
→ 소비증가 → 경기회복

- 증세로 인위적 물가인상을 통해 개인소득증가로 이어지게 하여 경기 회복을 꾀하지만
- 실패할 경우, 경기하강 국면 전환 예상
 - ⇒ 하강국면 발생을 대비하여 5.5조엔 보정예산 확보
- 성공할 경우 수요회복을 통한 경기상승으로 일본 경기 활성화가 예상.

증세 직후 일본 식품업계 동향

소비세 증세 직후 1주간 일본 유통업계 동향을 보면 객수는 전년동기 대비 조금 줄었지만, 매일 소비하는 신선식품 매출 증가 유도, 실질 가격인하 및 신상품 도입 등으로 타개하고 있음

- '97년 소비세 2% 인상과 비교하여 증세 전 매출증가, 증세 후 매출 감소는 비교적 미미함
- 고급품 위주의 백화점 계열은 영향이 많았지만, 일상과 밀접한 식품전문 유통업계에서는 영향 적음

※ 실질 가격인하는 각사가 가격변동없이 원재료 및 물류혁신 등으로 원가 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인하효과

<증세 후 1주간 유통동향>

- 추천으로 1/50 확률로 무료 구매권 증정 등의 기획을 통해, 증세 후 내점객수는 전년대비 조금 줄었지만, “예상보다 호조”. 식료품 중 보존성이 있는 상품은 3월 하순보다 매출감소가 있지만, 정육, 채소, 과일 등에 있어서는 매출액 변화가 없으며, 간편조리식품에 있어서는 비교적 호조를 보임. - 이온(일본 대형식품유통업체)
-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3.2% 하향세. 가공식품이 10% 감소하였지만, 간표조리식품은 10% 증가, 채소 및 정육과 같은 신선식품은 전년을 상회 - 이나게야(일본 대형식품유통업체)
- 기존점 매출액 8~9% 감소로 보존성있는 식품의 증세 전 사재기로 인한 것이며, 신선식품이나 간편조리식품은 전년을 상회하고 있으며, 5월 골든휴일에서 6월 정도 지나면 전년 수준의 매출이 기대됨 - 다이에(일본대형식품유통업체)
- 전체적으로 10% 정도 내점객 감소가 있었지만, 증세 전후의 매출은 '97년과 비교하여 증세 전 매출증가, 증세 후 매출감소가 현저하지 않음 - 이즈미야(일본 관서지역 대형유통업체)
- 기존점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5% 감소. 3월 증세 전 사재기로 인해 당배 판매감소를 제외하면 1% 증가. 4월 마이너스 폭은 3% 정도 예상되지만, 증세 전 매출증가로 감소분이 상쇄될 것이 예상됨 - 패밀리마트(일본 대형 편의점)

- 증세 전은 3월은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 증세 후 1주일은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25% 감소를 보임. 고급품 위주로 매출액 감소가 현저하지만, 여름까지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음 - 다카시마야(일본 대형 백화점)

‘15년 10월 소비세 2% 인상에 따른 예상 및 한국농식품 수출대책

- 일본 경기상승이 지속되면 올 하반기에 ‘15년 소비세 2% 인상이 확정될 것이 예상되지만, 소비세 추가 인상으로 인한 수요감소의 영향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보존성이 높은 식품의 ‘15년 2% 인상(8%→10%) 전 대량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 한국산 농식품 품목 중 보존성이 높은 식품류에 대한 ‘15년 증세 전 유통망 정비(바이어 상품안내 및 상담 등) 및 판촉강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신선농산물은 증세 후 판매증가가 예상되기에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
 - ‘14년 3월 누계 대일수출 실적을 보면 가공식품 물량 24.4% 증가(금액 16.4%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신선농산물 물량은 43.6% 증가(금액은 엔저 영향으로 -14% 감소)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물량 22.1% 증가(금액 -0.2% 감소)를 보이고 있음(aT 자료 참고)

<‘14년 3월 누계 수출증가 품목>

(단위 : 톤, 천불, %)

품목	‘13년 3월누계		‘14년 4월누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기타곡물발효주	38,119	28,343	46,768	32,240	22.7	13.8
기타소오스제품	834	2,657	866	2,923	3.8	10.0
홍삼정	19	2,418	20	2,885	3.9	19.3
기타설탕과자	13,638	21,000	13,658	22,410	0.1	6.7
혼합조제품	24,388	28,791	25,632	28,365	5.1	-1.5
코코아분말	5,354	6,319	6,055	6,698	13.1	6.0
미역	624	2,989	2,676	5,909	329.0	97.7
굴	1,079	6,796	1,158	7,254	7.3	6.8
투스	306	4,175	383	4,905	25.0	17.5
한천	75	2,075	85	2,341	12.9	12.9

[문의 : 오사카aT센터 유정열 / yjy@atcenter.or.jp]